

4개의 전쟁과 일본 내셔널리즘의 변용*

-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를 소재로 -

요네하라 겐(米原 謙)**

■ ————《目 次》————— ■

- | | |
|---------|-------------|
| 1. 들어가며 | 4. 제1차 세계대전 |
| 2. 청일전쟁 | 5. 제2차 세계대전 |
| 3. 러일전쟁 | 6. 마치며 |

1. 들어가며

본고에서는 내셔널리즘의 관념을 아이덴티티의 관점에서 고찰할 것이다. 집합체로서의 일본(자기)을 어떻게 정립하고, 타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승인)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근대일본의 내셔널리즘의 변용을 알아내기 위함이다. 내셔널리즘을 '방위'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종래의 관점¹⁾을 탈피하여 일관된 견지에서 분석하려면 이러한 관점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형식적으로 이름과 소속을 부여받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이름과 소속이 아이

* 본 논문은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2006년 12월)와 일본정치학회(2007년 10월)에서의 발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 오사카대학 國際公共政策研究科 교수,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원문(text) 중, 이하의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A, B, C, D로 간략하게 표기할 것이다. A = 『徳富蘇峰集』(明治文學全集24, 筑摩書房, 1974年), B = 『徳富蘇峰集』(近代日本思想大系8, 筑摩書房, 1978年), C = 『同志社大江義塾 徳富蘇峰資料集』(三一書房, 1978年), D = 『蘇峰文選』(民友社, 1915年)

1) 근대일본의 내셔널리즘을 '방위'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관점은 1940년대 말부터 50년대 초반에 형성되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점령통치와 냉전 하에서의 강화조약을 비판하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독립과 혁명을 지지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것은 아시아 각국에 대한 침략이나 영미와의 절망적인 전쟁을 연상케 하는 '초국가주의'와는 달리, 민주주의와 결합한 '건전한 내셔널리즘'이 존재했음을 설명함으로써, 전후의 '혁신' 내셔널리즘의 정당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관점을 제시한 전형적인 예로서,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집필한 「구가 가쓰난(陸羯南)」(1948년)이나 「近代日本思想史における国家理性の問題(근대일본사상사에 있어서의 국가이성의 문제)」(1949년)를 들 수 있다. 청일전쟁 또는 러일전쟁 당시까지의 '건전한 내셔널리즘'과 그 이후의 울트라 내셔널리즘을 준별하는 관점은 이후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소설이나 NHK의 '대하 드라마' 등을 통해 국민적 설화로 반복해서 재현되었다.

덴티티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그(혹은 그녀)의 실존에 불가결한 무언가를 타자와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의식이 거기에서 획득될 때뿐이다.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의 대 저작 『자아의 원천(Sources of the Self)』에서 아이덴티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이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아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관여(commitment)와 확인(identification)에 의해서 정의된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이 선(善)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에 반대해야 하는지를 시의(時宜)에 따라서 결정하기 위한 구조와 지평을 나에게 제공해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나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자신의 입장을 보지(保持)하기 위한 지평이다.”²⁾ 이렇게 테일러에게 있어서 아이덴티티는 개인의 말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가치관을 받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즉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사물에 관여하고, 그러한 관여에 의해 그 가치와 자기의 의미를 확인한다. 아이덴티티는 이와 같이 형성되는 것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아이덴티티의 본질이 ‘관여’와 ‘확인’인 이상, 그것은 항상 타자와의 교섭 가운데에서 형성된다. 테일러의 표현에 의하면 아이덴티티의 형성은 항상 ‘독백적(獨白的; monological)’이 아니라 ‘대화적(對話的; dialogical)’이다.³⁾ 즉 인간은 부모님과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자는 자기 안에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것과의 대화에 의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테일러는 아이덴티티 형성의 ‘대화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자아와 아이덴티티가 타자에 의한 ‘인지(認知; recognition)’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 즉 타자(특히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타자)와의 교섭에서 그 존재가 인지되고, 인간은 자기의 존엄(dignity)이 인정되는 것에 의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아이덴티티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근대 일본의 대표적인 내셔널리스트인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언설(言說)을 검토해 보자.

2. 청일전쟁

도쿠토미 소호가 갑자기 내셔널리즘에 마음이 강하게 기울어진 것은 『國民之友』 제 228호에

2) Charles Taylor, 1989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Harvard University Press, p.27.

3) Charles Taylor, 1991 *The Ethics of Authenticity*, Harvard University Press, pp.33-35. (번역은 『〈ほんもの〉という倫理』(田中智彦 訳, 2004), 産業図書) 그는 동일한 취지를 The Politics of Recognition에서도 반복하고 있다. Amy Gutmann 편 『Multiculturalism』(佐々木毅ほか訳, 岩波書店, 1996年) 46쪽 이하. 또한 recognition은 ‘승인(承認)’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여기에서는 ‘인지(認知)’로 번역한다.

게재되었던 「일본 국민의 팽창성(日本國民の膨脹性)」에서이다. 이는 청일전쟁 발발 직전에 쓴 것이었다. 소호의 논조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온 것은 전년도(1893년)로, 이민에 의한 일본의 '팽창'과 국민적 자부심의 필요성을 말하게 된다. 「위대한 일본(大なる日本)」(제179호, 무서명(無署名))에서 정부의 외교가 조약개정에만 주목하여 식민사업에 의한 '위대한 일본'의 건설이라는 과제를 의식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해국인민의 사상(海國人民の思想)」(제189호, 무서명)에서도 인구증가에 의한 국내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민팽창(national extension)'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영향을 받은 것은 실리(J. R. Seeley)의 『영국의 팽창(The Expansion of England)』이었다.

소호가 이 시기에 강조했던 또 하나의 논점은 국민적 자부심이었다. 「일본국민의 품격(日本國民の品格)」(제194호, 무서명)은 국가를 '경중(敬重)' 받는 국가, '공구(恐懼)' 받는 국가, '경모(輕侮)' 받는 국가라는 3가지로 구분하여, '경중'은 '문명력(文明力)'에 의해, '공구'는 '야만력(野蠻力)과 수력(獸力)'에 의한 것에 반해, '경모'는 어느 쪽도 아닌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일본은 이전에는 '공구' 받는 국가였지만, 페리의 내항 이후에는 '경모' 받는 국가로 전락해버렸다고 말한다. 「국민의 동화력(日本國民の同化力)」(제206호, 무서명)과 「자신(自信)」(제202호, 무서명)에서도 국민의 '자신자임(自信自任)'을 중시하고, 청년들에게 '자신을 믿자, 그리고 싸우자'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은밀한 변화를 배경으로 하면서 집필한 것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1893년 12월 간행)이었다. 이 책은 『國民之友』 제 154호부터 167호까지 10회 연재되었고, 한층 더 대폭 수정하여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소호가 처음으로 일본의 역사에 본격적으로 몰두했던 역작이다. 소호의 주장에 의하면, 봉건사회의 쇠국과 평화는 '국민의 팽창성'을 '고사(枯死)'시켜 '국민적 관념'을 잃게 하였다. 메이지 유신에서 쇼인(松陰)의 역할은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관념을 국민에게 되찾게 해 주었던 것이었다. 여기에서 소호는 쇼인의 양이론(攘夷論)의 의의를 '적개심의 응결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고, 쇼인의 양이론에 대한 높은 평가와 개국시(開國時)의 '굴욕감은 분명히 하나이다.

앞에서 말한 「일본국민의 팽창성」 이후 청일전쟁 중에 쓰여졌던 논문은 『大日本 膨脹論』으로 발간되었다. 여기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상처받았던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모티프였다. 예를 들어 「청 정벌의 진정한 의의(征淸の眞意義)」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개국(開國)은 올바른 도리(正理)라. 그렇지만 외국의 강박에 의해 개국된 굴욕이라. 쉽게 닦을 수 없는 우리 국사의 오점이라.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강국과 대립하면서 우리가 무릎을 펴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오점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합의에 의한 결혼은 인간의 대륜(大倫)이다. 그렇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결혼은 오히려 강간에 가깝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A261)." 여기에 강간이라고 평가되었던 페리에 의한 강제적 개국의 '굴욕'은 이후의 소호가 반복해서 되

돌아오는 지점이고, 근대 일본의 내셔널리즘의 원점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⁴⁾

강요받은 개국 이후에 돌아온 것은 '경모'였다. 세계는 일본인을 '원숭이에 근접한 인류나 '인류에 근접한 원숭이'로서 밖에 보고 있지 않는다고 소호는 몹시 분개한다(「청 정벌의 진정한 의의」, A264-5). 「세계에 있어서 일본의 위치(世界に於ける日本の位地)」(제235호)에서는 “구미(歐美)인사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자기(自個)와 대등한 위치에 두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 청나라와 조차 대등한 지위에 두지 않으려 한다.”(A252)고 하고, 그 실례로서 영국 보도기관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청일전쟁은 이러한 굴욕을 해소할 '좋은 기회(好機)였다. 전쟁의 승리는 일본을 중국보다 상위에 위치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라 상처받았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다. 소호가 말한 것과 같이 “최대의 전리품은 대일본국민의 자신력(自信力)”(A261)이었다. 이러한 '자신력'의 근본은 무엇보다도 구미에 의한 인지(認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전쟁은 '암실'에서의 격투가 아니라, '세계의 앞'에서의 결전이었다(A253). 구미에 의한 인지(認知)가 그에게 있어서 얼마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가를 소호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우리는 청나라를 이긴 것과 동시에 세계에서도 승리하였다. 우리는 알려졌다. 그러므로 존경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황공함을 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적당한 대우를 받는 데까지 와있다(A265).”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와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와 같이 소호도 청일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전쟁이라고 파악하려고 하였다. 『國民新聞』의 논설 「이대주의의 충돌(二大主義の衝突)」(1894년 7월 31일, 무서명), 「세계의 공적(世界の公敵)」(같은 해 9월 9일, 무서명), 「청일전쟁의 진의(日清戰爭の眞義)」(같은 해 11월 7일, 무서명) 등은 전형적인 것이다. 스스로를 '문명'이라는 위치에 두는 것은 구미로부터의 인지(recognition)를 요구하는 것과 표리일체의 것에 다름 아니다. 우치무라가 영문으로 발표했던 「청일전쟁의 의로움(日清戰爭の義)」에서 “중국은 사교율(社交律)의 파괴자이고, 인정(人情)의 해적(害敵)이고, 야만주의의 보호자이다(an open violator of social laws, a foe of humanity, and defender of savagery).”⁵⁾라고 호소하고 있다.

Humanity는 소호도 즐겨 사용했던 말이다. 「세계의 공적(世界の公敵)」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청나라는 문명의 적이고, 그러므로 인도(人道)의 적이고, 상세히 말하자면 세계의 공적(公敵)이다.” ‘인정(人情)’(‘인도(人道)’)는 서구문명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말이고, 소호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했던 ‘우내(宇內)의 대세’라는 역사관으로 연결되어 간다. ‘의전(義戰)’이라는 말에

4) 페리에 의한 개국을 굴욕이라고 파악한 것은 당시 공통의 감각이었다. 佐藤誠三郎, 1992 『「死の跳躍」を越えて-西洋の衝撃と日本』, 都市出版. 여기서 이것이 ‘참기 어려운 굴욕’이었다고 지적하고, 막말(幕末)의 내셔널리즘을 이 굴욕감에 대한 ‘철욕의 의욕’으로 설명하고 있다. (p.79 이하 참조) 여기에서는 사토(佐藤)가 인용하고 있는 오하시 도초안(大橋訥庵)의 문장을 재인용하겠다. “다른 곳에서 찾아온 자, 현관에서 안내도 받지 않고 서슴없이 객실까지 들어와서는 거기서 정원에 내려가 수목을 자르고 정원석을 움직이고, 또는 방문이나 장지문에 낙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일” (平泉澄·寺田剛 編, 『大橋訥庵先生全集』 上巻, 佐藤 앞의 책 79쪽에서 인용).

5) 『内村鑑三全集』 第3巻(岩波書店, 1982年), 41면, 106면.

의문을 나타낸 구미의 언론에 대하여 「무슨 권리인가(何の權乎)」(『國民新聞』 같은 해 9월 9일)에서는 구미 여러 국가가 문명의 이름으로 타국에 간섭했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인류공통의 대의는 한 국가로 하여금 그 인민을 혹사하고, 혹독한 대우를 하여 문명의 빛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주의 귀취(歸趣)에 어긋나고, 인류의 대경향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즉 야만인 국가를 정복하는 것은 문명의 권리(權)이다. (중략) 우리가 조선을 개혁하려는 것 또한 그 권리에 의한 것뿐이다. 중국을 정벌하려는 것 또한 그 권리(權)에 의한 것뿐이다. 유럽강국이 한 일은 즉 우리가 하고자 원하는 바이다.”

갑자기 정색해 나섰다고도 읽을 수 있는 문장이지만, 조선독립과 극동의 안전은 단순히 일본의 자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 있어서의 인정(人情), 문명”의 위협이라고 그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조선문제의 진상(朝鮮問題の真相)」, 제285호).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 있는 것은 문명의 보편성이라는 이념이다. 「문명의 권리(文明の權利)」(제308호, 무서명)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대 사실은 문명이 자기(自個)의 생존을 확립(確執)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확장에 노력하여 그 이웃 국가(四隣)를 덮치려는 야만력에 대하여 방위 혹은 공격적인 태도를 계속 취하는 것이 옳다.” 이와 같이 ‘문명이 야만을 지배하는 것은 ‘문명의 권리’이고, 또한 그것이 역사의 ‘대세’이다. 따라서 일본이 조선 지배를 둘러싸고 청국과 전쟁을 했던 것은 자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문명’ 때문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문명의 권리’를 내세워 구미에 의한 인지(認知)를 요구하는 것이 그대로 구미 추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896(明治 29)년 2월 게이오 기주쿠(慶應義塾)에서의 강연 「역사적으로 관찰한 개국론(歴史的に觀察したる開國論)」(제284호)에서는 일본 국민은 ‘세계의 시민’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한 후에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략) 세계를 일본화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을 세계화하라. 진정으로 백인종의 세계에서 특권을 타파하고, 독점을 소거하고, 그들의 세계 전횡주의(專橫主義) 혹은 백인종 할거주의를 제거하고 세계를 위해서 일대 평등계(平等界)를 새로이 시작하여 인류, 인정(人情), 문명의 진척을 향해 그 천직을 다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소호가 ‘문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문명’과 ‘인정(人情)’의 보편성의 신념이 존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호의 ‘문명’의 이념은 ‘우내(宇內)의 대세’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고 ‘인정(人情)’, ‘인도(人道)’ 등의 단어에서 언급된 내용 역시, 쉽게 ‘우내(宇內)의 대세’로 대체되었다. 이는 생애를 “일개 journalist로서, 동시에 publicist로서 일어서는”(『蘇峰自傳』) 것에 뜻을 두었던 소호의 특징이며 근본적인 약점이었다.

3. 러일전쟁

소호는 청일전쟁 후 일본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국민은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전쟁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거인이 된 국민은 평화담판 때문에 하룻밤에 난쟁이가 되었다.”(「일본국민의 활제목(日本國民の活題目)」, 제263호). 삼국간섭이 소호에게 주었던 충격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나는 정신적으로 거의 딴 사람이 되었다.”(『蘇峰自傳』)라고 말하고 있다. 전쟁의 승리에 의해서 ‘거인이 된 국민’이란 명확하게 그 자신이었다. 그 고양되었던 기분은 「전쟁에 따른 현상(戰爭に伴ふ顯象)」(제240호, 무서명)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동양의 패권은 일본으로 이동되었다. (중략) 만약 일본이 대담한 비약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영국의 세력을 동양에서 일억(一抑)하는 것 또한 반드시 난사(難事)가 아니라고 하겠다.” 여기에는 ‘위대한 일본’에의 자신이 넘쳐났다. 이 같은 자신감에 기초하여 이후의 일본의 목표는 영국이라고, 소호는 소리 높여 선언한다. “일본을 세계의 대일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힘(勢)을 해상의 제왕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해상의 제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상의 전투력에 있어서 영국에 대적하기에 충분하게 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그 상업수송의 평화적 전쟁에 있어서도 또한 영국에 대적하기에 모자라지 않아야 한다.”(「영국을 표적으로 하여 나아가라(英國を標的として進め)」, 1894년 12월 14일, 무서명)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국에 대항할 국력을 갖추어, 동양에서 영국의 패권을 일본이 탈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삼국간섭의 경험에 의해서 그러한 직설적인 표현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후의 소호는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제국주의를 설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계에 있어서 제국의 사명(世界に於ける帝國の使命)」(제275호, 무서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계는 단순히 국민의 세계가 아니고, 그 역시 인간의 세계이다. 국가의 생존은 위대한 요구이다. 게다가 인정(人情)은 이보다도 한층 더 위대한 요구이다. (중략) 내가 오늘날에 있어서 해야 할 대계(大計)는 일본 제국으로 하여금 인정(人情)과 문명의 방위자로 만드는 데 있다.” 즉 일본의 국가목표를 ‘인정(人情)’과 ‘문명의 이름으로 재정의한 것이다. 1개월 정도 이후의 논설 「자주적 외교의 의의(自主的外交の意義)」(제28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일본의 국시(國是)가 침략적이라면 일본은 문명의 적, 인정(人情)의 적이다.” 그러니까 ‘자주적 외교’란 ‘도(道)에 근거하고, 의(義)에 따르며, 국가 당연의 권리를 이행’하는 외교라고 소호는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한 ‘도’와 ‘의’에 따르는 외교는 비록 ‘침략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도, 평화적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연히 ‘인의(仁義)’를 주창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준비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공언(空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를 침략하기 위한 준비를 확장하지 않더라도 세계의 폭력을 금하고, 해(害)를 모아서, 우리 국가 당연의 권리와 천직을 다함에 있어서 유감없는 준비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준비확장의 필요성은 ‘인의’의 정치를 실행한다고

하는 이유로 변증되게 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인정(人情)과 문명의 방위자'로서의 일본에 대치되고 있는 것은 '인정과 문명'의 적인 러시아이다.

소호는 1896(메이지 29)년 5월, 세계여행을 떠나 다음해 7월 귀국한다. 아마 그 건문의 성과에 입각하여, 그는 제국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평화적 팽창주의이고, 이익을 농단하고 독점(壟斷獨占)하지 않는 의미에서의 팽창주의이다. 무역으로써, 생산으로써, 교통으로써, 식민으로써 한 국가의 이익을 확충하고 민족의 발달을 기약한다. 소위 군비와 같은 것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편에 다름 아니다."(「제국주의의 진의(帝國主義の眞意)」, D481~2). 여기에서 열강과 보조를 맞추면서 '문명의 공의(公議)와 병립하는 형태로 제국주의적인 영토 분할에 참가하려고 고심하는 일본의 태도가 투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러일전쟁에 즈음하여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國民新聞』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세계의 동정(同情)'을 끄는 것이었다. 전장에서 승리하더라도 '열강의 동정 밖에 서있는 것'으로는 '전승의 결과를 만족스럽게 거두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⁶⁾

'세계의 동정'이라는 관점에서 소호가 신경질적으로 반발했던 것은 황화론(黃禍論)이었다. 『國民新聞』은 먼저 「황인화(黃人禍)」(1904년 6월 23, 24일)라는 제목으로 『Times』 논설의 번역을 싣고 있었다. 황화론이 일본을 다른 아시아 여러 국가와 동일시했던 것에서 오는 오해라고 하는 취지이다. 이틀 후에는 소호 자신의 논설 「황화론의 반향(黃禍論の反響)」이 게재되었다(같은 해 6월 26일). 여기에서 소호는 일본인을 일종의 '문명적 원숭이'라고 하는 논자들의 논의를 인용한 후, 이러한 견해를 부정하는 『Spectator』와 『Times』 등의 기사를 세밀하게 소개한다. 그리고 "소위 아시아적이라는 개괄적 명칭"은 일본을 수식하는 단어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아시아'라는 호칭 하에, 일본이 중국과 동일시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려하였다. 일본(인)과 중국(인)을 대조적으로 그린 수법은 청일전쟁 이래의 일이지만, 이 시기에는 일본문명은 '세계 공통적 문명의 품속(懷裡)'에 있다고 주장된다. 「일본인과 지나인(日本人と支那人)」(1904년 5월 22일) 및 「일본과 지나(日本と支那)」(같은 해 8월 11일, 무서명)에는 모두가 중국인에게는 국가적인 관념이 결여되어 있고, 서양문명을 수용하는 천성적인 소질(資性)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구미인이 여러 차례 일본을 '작은 지나'라고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반발하여 양자는 "그 성질(質)에서 다르고, 그 심적 경향에서 다르고, 그 정신적 소양에서 다르다."("일본과 지나(日本と支那)")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서구에서 조선과 중국과 같은 범주로 이해되는 것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이 된다. 이 인식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론(脫亞論)」이래의 것이다. 메이지(明治) 후반에서 다이쇼(大正) 초기에 걸쳐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장 충실하게 계

6) 「世界の同情」, 『國民新聞』(1904년 7월 3일). 또한 이 시기의 『國民新聞』에는 「世界の同情」이라고 제목을 붙인 논설이 몇 번이나 게재되고 있다.

승했던 이론적 지도자(ideologue)가 소호였다. 소호는 후쿠자와가 아직 의식하고 있지 않았던 인종적 견해를 받아들였다. 인종론을 기초로 하는 제국주의론이 서구에서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⁷⁾ 그러나 백인 대 황인(黃人)이라는 대립 도식을 염두에 두면서 1916년경까지의 소호는 일본을 황색 인종의 대표라는 사고방식을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었다. 구미 여행에서 귀국한 직후인 1897(메이지 30)년 9월,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황인종을 거느려 백인종에게 대항한다고 말한다. 그 논리의 통쾌함은 물론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략) 게다가 그 논리가 생각한 대로 실행되어가는 날에는 우리나라는 세계를 모두 적으로 하고도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어찌 한심(寒心)하지 않을 수가 있으리라.”(「황적 악감(黃的惡感)」, 제361호, 무서명). 실로 불길한 경고이지만, 후에 그 자신이 이 ‘한심(寒心)’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소호가 이와 같이 말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서구 여러 국가와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중국과 조선은 거의 의지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것은 ‘인종적 시의심(猜疑心)’의 도발이 일본에게 ‘모두 해가 되고 이익을 막는다(皆害絶利)’라는 판단이다. 소호는 국제정치에서 ‘인종적 시의심’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진다고 의식하고 있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청일전쟁 후의 ‘황인종을 증오하는 악감정(憎黃的惡感)’이 일본의 장래에 있어 커다란 ‘암초(暗礁)’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들이 인종의 서로다름(相違)을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는 인성(人性)의 공통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그들이 종교의 다르고 같음(異同)을 논한다면, 우리는 인도(人道)의 일치를 설명해야 한다. 그들이 상업의 경쟁을 격정한다면 우리는 문명의 보급으로써 해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세계에 연계하는 바이다.”(위와 같음). 인종과 종교의 편견이 무시할 수 없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일본은 문명의 보편성에 호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러일전쟁기가 되자 더욱 명쾌하게 세련된 형태로 전개되었다. 「우리 국민의 포부(我が國民の抱負)」(1904. 4. 17), 「러일전쟁의 부산물(日露戰爭の副産物)」(1904. 5. 1), 「동아의 일본과 세계의 일본(東亞の日本と宇内の日本)」(1904. 6. 19)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의 포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국민의 오늘에 있어서 가장 관심은 세계의 호의이다. 우리나라는 세계를 적으로 하여, 자신의 의지를 굳세게 밀어나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세계를 우리 편으로 하여, 자기 또한 그의 한 요소가 된다. 문명세계가 공유하는 경복

7) 예를 들어, 셸멜(Bernard Semmel)의 『社会帝國主義史』(みすず書房, 1982년)를 참조. 일본에서 이 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은 러일전쟁 직후부터이다. 소호가 러일전쟁 직전에 ‘일본과 러시아의 경쟁은 결국 인종적 경쟁이고, 국민적 경쟁이다’라고 쓴 것이 일례이다(「雜言數則」, 1903년 9월 27일). 소호의 논설에 앞서, 구가 가쓰난(陸羯南)도 『日本人』(제181호, 1903년 2월 20일)의 사실 「日本民族の将来, 読者に高誨を促がす」에서 ‘국제경쟁의 진상은 인종경쟁에 있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가쓰난은 여기에서 ‘동양인종통일’, 즉 중국과 일본과의 제휴가 필요하다고 논하고, 일본인이 ‘동양인종’이라고 불리는 것을 혐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陸羯南全集』第九卷(みすず書房, 1975년), 553쪽 이하 참조. 또한 황화론의 역사적 추이에 대해서는 橋川文三, 2000, 『黃禍物語』, 岩波書店 참조.

(慶福)을 취득하여, 보편의 은혜에 의지하기를 바라는 데 있다. (중략) 우리는 동이를 우리 편으로 하여 구주에 저항하는 자가 아니다. 황인종을 거느려서, 백인종에 저항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구주인의 선구가 되어서 아시아 정벌을 꾀하지도 않는다.” ‘세계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비굴할 정도의 배려가 들여다보이는 서술이다. 러일전쟁 시기의 소호의 언설은 ‘거국일치의 정신’을 고취하는 것과 일본의 행위에 대한 제3국의 이해와 동정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문명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일본을 서구문명에 함께 따라가는 것이라는 위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문명세계가 공유하는 경복(慶福)’이라는 말의 이면에는 열강의 동정을 환기하려는 목적은 물론이고, 서구 여러 국가에서 뿌리 깊은 인종적 편견의 존재를 비판할 의도가 숨겨져 있다. 실제로 이 문장의 후반에서 ‘구미인의 편견을 비판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들의 지나치게 편굴(偏窟)한 인종적, 종교적 집착(원문:執著心)에 대해서는 그들의 다른 부분에서의 발달과 교양에 비례하여 일종의 반조(反照)를 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러한 편견을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고 까닭 없이 본심을 의심받는 감이 없지 않을 수 없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문명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구미인의 원칙과 인종적, 종교적 편견과의 모순이 지적되어, 인종적 편견에 근거한 일본론이 황화론이라고 하는 일그러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2주 후의 「러일전쟁의 부산물(日露戰爭の副産物)」에서는 구미인의 ‘언행불일치’가 더욱 공공연하게 비판되어, ‘사해동포주의’는 그리스도 교권(敎圈)의 백인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된다. 지금까지 ‘흑인의 위, 중국인의 아래’에 위치되어 온 일본인은 청일전쟁 승리에 의해 ‘중국인의 위’라고 보이게 되었다. 러일전쟁에 의해서 일본은 “실력으로써 세계열강의 사이에 억지로 밀고 들어가서” 평등한 인지(認知)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백인에 한정되어 왔던 ‘사해동포주의’에 대한 새로운 지평의 획득이고, “세계적인 식견에서 본다면 인도(人道)의 진화”가 된다. 한층 더 ‘동아의 일본과 우내(宇内)의 일본(東亞の日本と宇内の日本)」에서는 일본의 뜻은 ‘동아의 수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문명의 선구’로서 아시아 여러 국가를 지도하고, 그에 의해서 ‘동아문명의 장벽을 제거하고, 황백 인종의 할거를 완전히 없애고, 우내(宇内) 공동문명의 범위를 확충하는데 있다.’고 설명된다. 모두 황색인이면서 서구 문명 측에 서는 것으로 백인과 동등한 인지(認知; recognition)를 획득하고 그에 의해서 인종과 종교의 편견을 타파한다고 말한 것이다.

러일 전쟁의 승리가 결정되었을 때, 소호는 ‘배일론자(排日論者)’가 차마 분함을 금치 못해 할 소리를 상정하여 다음과 같이 쓰기 시작하고 있다. “18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본국민은 그저 노란 원숭이였을 뿐. 이제 우리는 세계 7대 강대국 중의 하나로 꼽혀, 태평양에서의 최고의 세력으로서 열렬한 찬양을 받기에 이르렀도다.”(「일본국민의 지망(日本國民の志望)」, D833) 여기에서 개국과 삼국간섭에 의한 ‘굴욕’에 대한 그의 카타르시스를 읽어 낼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황인(黃人)동맹의 패주(覇主)’가 되기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백인과 협력하여 그들(아시아인을 말

함·인용자)을 이끌고, 계발하여 그 얻는 바에 있게 하기를 바란다.”(「황인의 중하(黃人の重荷)」, D 892)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기의 소호가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이다. 그는 ‘인종적 경쟁’이 아니라, ‘인종적 균형’을 요구하였다. 때문에 중국, 조선에 있어서 ‘인종적 자각’을 ‘자각’하여 배외의식을 ‘특별(特發)하지 않게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즉 스스로는 ‘노란 원숭이’임을 거부하여 백인과의 대등성을 주장하면서 마음속에서는 동일한 꼬리표를 다른 아시아 여러 국가에 붙이는 것이다. 이는 구미에 대해서는 황인으로서 자신을 정립하여 백인과의 대등성을 주장하면서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해서는 마치 백인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황색인이라고 자각하여 인종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신은 ‘아마토(大和) 민족으로서 존재할 뿐’이라고 큰소리치고, ‘황백 인종을 융화’시킨다고 말하는 태도는 이미 국제적 고립을 예감하게 한다.

미국 대통령의 강화 권고를 러시아가 수락한 직후, 소호는 「세계의 동정(世界の同情)」(1906. 6. 18.)이라는 제목을 붙인 글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해 온 일본의 자세를 ‘철새로 비유하면서 깊은 고립감을 표명하고 있다(덧붙여 ‘철새(원문:旅鳥)’는 이후에도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소호가 빈번하게 사용한 단어이다). “인종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 관습이라는 것, 대개 무형 유형의 생활에 관한 고유의 유대가 되는 것은 피아(彼我)의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일본은 넓은 세계에서 일개 이객(異客)이니라. 그 고독, 적막한 느낌은 금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 여기에서 표명된 고립감은 제3차 영일동맹협약(1911년)으로 인해 결정적인 것이 된다. 제3차 영일동맹협약은 미국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일본의 주요한 관심이 미국이지만 미국을 대상에서 제외한 이상, 이 동맹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동맹과 협약은 일본이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에서만 효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유의 힘을 잃어버린다면 당장 무력화되어 버리고 말 것이라고 소호는 경고한다.

1911(메이지 44)년 7월, 조인 직전의 논설 「각성할 것인가? 게으름 피며 잠만 잘 것인가?(원문:醒覺乎惰眠乎)」에서 “요컨대 일본은 동맹을 가지고 협약을 가진 한 개의 고립국일 뿐”이라고 소호는 단언하고 있다(D1141). 국제관계에서는 같은 인종, 같은 종교 사이에서조차도 이해관계만을 목표로 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다른 인종, 다른 종교의 일본에 있어서랴.”라고 말할만도 하다. 수개월 후의 「고분(孤憤)」에서는 동일한 것을 가지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아마토(大和) 민족은 세계에 있는 민족 가운데 거의 고립고행(孤行)의 민족이다. 친척도 없으면 일가도 없고, 말하자면 천지의 일개 한객(閑客)일 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영국인이 미국인에게 하는 상투적인 문구이기도 하나, 우리 아마토 민족은 어떠한 방면을 보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만한 관계가 없다. (중략) 아마토 민족을 세계에서 지지받게 하려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힘껏 응비하는 것 외에 묘책이 없다.”(D1153~4). 깊은 고독감과 함께 여기에서 이제는 서구문명의

보편성에 대한 조금의 신뢰도 표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쳐 극동의 일대 제국주의 국가로서 자립하였을 때, 소호가 도달한 결론은 “오직 우리가 보는 바를 결행하고, 실행하고, 수행해야만 할 뿐”(D1154)이라고 말하였다.

4. 제1차 세계대전

러일전쟁 직후의 「세계의 동정」에서 흘러나왔던 고립감에는 아직 전쟁의 승리에 따른 여유가 있었다. 이 논설의 1주일 전에 게재되었던 「여전한 이 후진국(猶是れ後進國)」(1905년 6월 11일)에서 소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세계가 이미 우리를 알고, 최소한 우리를 쉽게 대하지 말아야 함을 알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대단함을 알게 된 오늘에 있어서 우리 일본국민이, 세계가 하나같이 칭송함에 따라 그 상태보다 지나치게 비상하듯 함은 아마 제국의 위대함을 이루는 바가 못된다.” 여기서는 적합한 인지(認知)를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만족과 동시에 자만심에 의한 정신적 이완을 경계하는 태도가 간파된다. 이 시기의 소호에게는 아직 심각한 고립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싹트기 시작한 일본의 고립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제3회 영일동맹협약 이후, 소호의 안에서 암운(暗雲)과 같이 부풀어 올라 강박관념화 되어간다.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걸쳐서, 소호는 『國民新聞』에 연재물을 차례로 발표하여, 이를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時務一家言』(1913년 12월), 『세계의 변국(世界の變局)』(1915년 3월), 『大正政局史論』(1916년 3월), 『다이쇼의 청년과 제국의 전도(大正の青年と帝國の前途)』(1916년 10월), 『대전 후의 세계와 일본(大戰後の世界と日本)』(1920년 10월), 『國民自覺論』(1923년 3월), 『야마토민족의 각성(大和民族の醒覺)』(1924년 7월, 단 이 책은 앞의 두 저서와 중복하는 부분이 있다) 등이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저작을 중심으로, 내셔널리즘의 전개를 추적해 나가자.

『時務一家言』에서 우선 강조되었던 것은 ‘제1등국(第1等國)의 면목’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단순히 야마토 민족이기 때문에”(A288) 감수하고 있는 이민 배척 등의 차별대우의 ‘치욕’이다. 여기에서 소호는 변함없이 일본을 “세계에서 고립된 외로운 나그네”(A308)로서 그리고, “표표(飄飄)한 철새”(A288)로서의 ‘자부’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시기에 그가 주장한 것은 ‘백발타파(白鬪打破)’이다. 백인이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것은 종교를 구실로 하고 있지만, 그들의 전횡의 진정한 이유는 “다른 인종의 근성이 없음”(「백발(白鬪)」, D1305)에 기인한다고 소호는 말한다. 즉 ‘백발’의 원인은 백인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려면 다른 인종이 백인에 필적하게 되어 ‘인종적 평형’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이는 ‘동서문명의 장벽’을 철거하여 ‘세계 공동문명의 범위를 확장’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러일전쟁 당시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전에는 ‘강국(強

國)이라 불릴만한 동료의 일원'으로서 인지(認知)를 얻는 것에 의해서 백인과의 대등성을 획득하려고 하였다. 그것이 '동서문명의 장벽'을 타파하는 것의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에 의해서도 '차별적인 취급'을 없앨 수 없었던 이상, 더욱더 강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즉 단순히 인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들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이다.

'백벌타파(白鬪打破)'에 대해서 『時務一家言』의 「문앞의 눈(門前の雪)」이라는 제목을 붙인 한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벌타파는 백인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스스로 국민으로서의 인격을 그들에게 인식받아야 하는 기반을 확보하는데 있다. 오해하지 말라. 우리는 다른 유색인종을 통솔하여 백인종과 싸우지는 않는다. (중략) 우리는 분하지만 아시아의 대표자가 되어 백인종과 항형(抗衡, 맞섬-역자)할 야심이 없다."(A333). 아시아 여러 국가와의 동맹과 협력에 의해서 구미 열강에의 대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시아주의라고 한다면 이 시기까지의 소호는 일관되게 아시아주의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신해혁명 이후 중국혁명의 진행을 전혀 평가하고 있지 않았고, 중국은 자기 보전의 능력이 없는 이상 결국은 '열강의 각축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인도, 시베리아와 북만주, 인도차이나, 필리핀에 있어서 '영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의 세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세력과 협력하여 '지나을 이끌고, 서로 배풀어가면서 동양의 평화를 지지한다'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소호의 전망이다. 결국 '백벌타파'라는 용감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시점에서는 아시아에 있어서 열강의 현재 상황을 인정하면서 일본이 서구로부터 '인식'되도록 국제적 지위의 상승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 이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 시기 이후의 소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미국의 대일 이민정책이다.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할 목적으로 1913년에 캘리포니아 '배일(排日) 토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는 『時務一家言』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신사협정(紳士協定)에 의해서 일본은 스스로 이민을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인 이민에 대해 '박해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일본의 항의도 무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찌 제1등 국가의 면목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아직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음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없음에 극치일 뿐이다."(A287). 이 굴욕적인 생각은 배일운동의 항진(尙進, 기세의 고조-역자)과 함께 강해지지 않을 수 없다. '백벌타파'는 처음에 유럽과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기득권익에 대한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열강에의 보다 강경한 태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은 주위의 상황부터가 필연이었다. 소호는 제1차 세계대전을 '유럽에 있어서의 인종적 경쟁의 폭발'이라고 하고, 단적으로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혹은 '앵글로 색슨 민족'과 '튀튼 민족'의 충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대전후의 세계와 일본(大戰後の世界と日本)』). 때문에 미래의 대전쟁이 백인종 대 황인종의 충돌이라는 형태로 일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호가 '동양 먼로주의'를 처음으로 말했던 것은 1916(다이쇼(大正) 5)년 2월에 집필된 『大正政局史論』의 말미에 있어서였다. '동양의 맹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다른 맹주의 아래에서 고두(叩頭)하는 운명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중국에 대한 21개조 요구 교섭에서 정부의 양보와 영미 제국(諸國)에 대한 '비위맞춤(氣兼)'을 가차 없이 비판하고 있다. 소호는 중국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대립을 거의 불가피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분명하게 되었을 때, '백벌타파'는 '아시아 먼로주의'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었다. 『大正政局史論』의 말미에 살짝 놓여 있었던 이 단어는 『다이쇼의 청년과 제국의 전도』에서 정면으로 나오게 된다. 여기에서 "아시아 먼로주의란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인에 의해서 이를 처리하는 주의"(B230)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아시아인' 가운데 이 임무를 감당하는 것은 일본인뿐이므로 결국 이는 "일본인에 의해서 아시아를 처리하는 주의"(B230)라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는 '동양 인종의 총대'로서 '백벌의 발호를 소탕'하고, '종래 행사해야 하는 권리를 '회복'하는 것도 설명된다. 가장 적국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은 미국이고, 이 '세계최대강국'과 '항형(抗衡)'하는데 충분한 만큼의 군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⁹⁾

『다이쇼의 청년과 제국의 전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막말 이래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꿰뚫어보고 일본의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소호는 여기서 "적당한 수준에서 태평하게 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 와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확인한다(B225). '이제 와서'란 청일, 러일 양 전쟁에 의해 조선과 중국에서의 열강과의 세력 다툼을 중도에서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일본은 "강국으로서 세계에 서야 할 운명"을 "어쩔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소호의 결의이다(B225). 이 책에서 그는 다시 개국(開國)의 '굴욕'에 대해서 말한다. 일본의 개국은 '강간'과 동일하여 일본 개국사(開國史)는 '국욕사(國辱史)'였다. 유신의 공로자들은 "한번 심하게 물린 개"처럼 외국인을 보면 "바로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흔들고 그저 꼼짝도 못 한다."(B158)라고 비판받는다. 제국주의는 "국민적 본능"이지만 일본이 "고립무원의 국가"인 이상, "그 일거수 일투족은 세계의 공론(公論)을 만족시키도록"(B236)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열강과의 협조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고립무원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신용이 없고 평판이 나쁜 증오받는 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동지가 있는

8) 예를 들어, 『세계의 변국(世界の變局)』의 한 구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일의 충돌은 미국의 책임도, 일본의 책임도 아니라, 양국의 국운(國運)의 발전상 자연의 결과일 뿐이다."(349쪽)

9) 이와 관련하여 소호와 시기를 같이 하여, 기타 잇키(北一輝)가 『지나혁명의사(支那革命外史)』에서 '아시아 먼로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기타는 중국과의 동맹에 의해서 영국과 러시아를 아시아에서 추방하는 것을 제시하였지만, 소호와는 다르게 미국에는 적대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반대적 입장에 있었던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같은 말을 사용하여 대륙의 세력 신장을 주창했던 것은 흥미 깊은 사실이다. 여전히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에 아시아 먼로주의라는 사고방식이 상당히 침투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古屋哲夫, 1996 「アジア主義とその周辺」 『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古屋哲夫 編, 緑陰書房 수록) 참조.

것과 같은 환상을 가지는 것은 강하게 경계된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 있는 것은 일본국민이 자부하는 정도로는 서구로부터 ‘인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자의식이었다(1880~81).

1924년 배일(排日) 이민법의 성립을 맞이하여, 소호는 다음과 같이 쓴다. “미국 상하 양원은 우리 일본 국민에 대해서 서 말의 컷물을 마시게 하였다. (중략) 우리는 수치를 앎과 동시에, 수치를 참지 않으면 안 되었다. 치욕을 참는 동시에 어떻게 해서 설욕할지를 열심히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⁰⁾ 몇 번이나 반복한 것과 같이, 개국 이래의 ‘수치’ 혹은 ‘굴욕’은 소호의 대외관의 저변에 뿔려야 뿔 수없이 놓여있었던 감각이었다. 어떻게 이를 ‘설욕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이는 구미의 충분한 인지를 획득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었다. 이것이 소호에게 있어서 내셔널 아이덴티티 확인의 중심적인 과제이다. 처음에는 중국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다음에는 일본이 구미 문명의 이념을 체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구미로부터 인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황화론과 미국의 이민배척은 소호의 이러한 전망을 완전히 부정하였다. 구미로부터의 인지를 단념했을 때, 남겨진 것은 ‘아시아 먼로주의’이다. 이전에 소호는 일본이 ‘아시아적이라는 개괄적 명칭’으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제야말로 소호는 일본인 이민배척을 ‘유색인종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여, 일본국민이 ‘유색인종 중의 선진’으로서 그 ‘보호자로서 해야 할 자격과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그 책임을 포기하여 ‘미국인에게 추종하고, ‘약한 동료를 아군으로 하는 것보다도 강한 손님과의 제휴만을 추구’한 것이 비판되어, ‘일본국민은 얼마나 경박하고 생각이 짧은 사람들인가’라는 반성의 말을 토로하게 된다.

아시아로의 회귀이다. 이전의 탈이론적인 견지로부터 ‘아시아 먼로주의’, 즉 「아시아인의 아시아(亞細亞人の亞細亞)」¹¹⁾로의 회귀가 여기에서 완성된다. 이는 아시아주의의 한 종류로 보이지만, 그는 아시아 여러 국가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주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시아인의 아시아’라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소호의 이미지 가운데에는 일본은 여전히 고립하고 있다. “지나인은 구미를 숭배하고, 일본을 경멸한다.” 이것이 ‘아시아인의 아시아’를 주창했던 때의 소호의 중국관이 다. 아직껏 중국은 구미문명을 이해하는 자질이 없다고 논단(論斷)되고 있다. 지금은 중국인이 구미문화를 ‘외경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일본은 ‘구미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중국인으로부터 ‘바보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분개하는 것이다. 항상 의식되고 있는 것은 구미문명이요, 일본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중국의 위치가 결정된다. 일본이 구미문명에 바짝 다가와 있다고 의식하고 있을 때, 중국은 ‘아만’이고 문명화로의 뒤떨어짐으로서 특징 지워진다. 일본이 아시아로 ‘회귀’한다면 중국은 구미문명의 숭배자로 여겨져, ‘일본 고유의

10) 『大和民族の醒覺』(民友社, 1924년), 22~4쪽.

11) 『昭和國民讀本』(東京日日新聞社, 1939년) 266쪽 이하. 또한 아시아 먼로주의(보다 넓게 말하면 아시아주의)의 역사적인 진폭(振幅)에 대해서는 古屋의 앞의 글 「アジア主義とその周辺」이 참고가 된다.

문화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비난받는다. 아이덴티티의 요동(搖動)이 그대로 중국관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5. 제2차 세계대전

15년전쟁 시기에 소호는 『증보국민소훈(增補國民小訓)』(1933년), 『전시개언(戰時概言)』(1937년), 『소화국민독본(昭和國民讀本)』(1939년), 『만주건국독본(滿州建國讀本)』(1940년), 『황국일본의 대도(皇國日本の大道)』(1941년), 『일본을 알아라(日本を知れ)』(1941년), 『흥아의 대의(興亞の大義)』(1942년), 『필승국민독본(必勝國民讀本)』(1944년) 등을 차례로 공간(公刊)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서는 전쟁의 공식적인 정당화에 지나지 않고, 거의 선동적 전달과 같았다.

소호 본래의 특색은 오히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발휘되었다. 대본영 발표를 우직하게도 믿었던 소호는 옥음방송(玉音放送)도 성전(聖戰) 완수의 호소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세계의 대세’에 민감한 소호도 이때만큼은 ‘시세(時勢)’에 장단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 시차가 역설적으로 소호의 논의에 일시적인 정채(精彩)를 부여하였다. 최근에 공간된 『徳富蘇峰終戦後日記』에서의 쇼와천황 비판은 가장 좋은 예이다. 소호가 패전 직후에 쇼와 천황을 비판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대본영 발표로 밖에 알지 못했던 소호가 전쟁의 계속 가능성을 믿고 있었던 것, 두 번째는 적국이었던 미국과의 화해를 수궁하지 않았던 것에 있다. 전자는 전후 신문보도에 의해서 전쟁의 실황을 안 것으로 해소한다. 두 번째 이유도 미소 냉전을 확인하여 소련을 제1의 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소하여, 소호는 본래의 ‘천황중심주의’로 복귀한다.

그러나 소호가 체현했던 내셔널리즘은 전전(戰前)의 상태로는 있을 수 없다. 우선 중국에 대한 관점이 전환된다. 『패전학교·국사의 열쇠(敗戰學校·國史の鍵)』(1947년 집필)는 이하와 같이 기술한다. 일본은 예로부터 중국에서 거대한 영향을 받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마치 ‘요코즈나(横綱)와 슈료(十兩)’의 관계였다(요코즈나는 스모의 최고서열로 상위 3단계에 속하고 슈료는 바로 그 아래임-역자). 질과 양 모두에 있어서도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인식하였을 때, 일본인은 ‘투지’로 독자적인 것을 만들어 내었다. 그것이 신도(神道)였다고 한다. 중국에 대한 열등감을 일본의 독자성으로의 관념으로 전환했던 분수령은 쇼토쿠 태자(聖徳太子)였다. 쇼토쿠 태자가 만든 17조 헌법의 기본사상은 황실중심주의, 불법(佛法)중심주의, 인화(人和)중심주의이고, 이에 의해서 쇼토쿠 태자는 일본의 국체를 명징(明徴)하여 중국과 대등한 교체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일개 독립국으로서 아시아 대륙에서 대제국이 되고 중국에 대항이라는 말은 하지 않되, 대립하려는 기상을 발휘”(B455)하여 중국에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자존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

『일본서기(日本書紀)』였다고 하는 것이다.

청일전쟁 이래, 일관되게 일본보다 열등하게 놓여 있었던 중국의 이미지를 180도 전환하여 거대한 이웃에 인접했던 소국(小國)의 씩씩한 내셔널리즘으로서 ‘대동아전쟁’이 다시 파악되고 있다. 아시아 먼로주의는 열등감이 심해진 허세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인은 본래 부끄럼을 잘 타는 ‘우치벤케(内弁慶: 집안에서만 큰 소리치고 밖에서는 아무말도 못하는 사람·역자)’로 상대의 우월을 순순히 인정하고, 자기를 열등시하는 ‘소심한 자’(B395)이다. 하지만 중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던 신국(神國)사상에 의해서 자기기만, 자기도취에 빠져 하마터면 국가를 멸망시킬 뻔했다. 이는 신국사상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이 중용을 잃어 자기기만에 빠진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국체론에 근거한 내셔널리즘은 총참회론(總懺悔論)에 따르는 형태로 수정되어 황실중심주의가 실로 감탄스럽게 재생되고 있다.

두 번째는 미일관계의 재평가이다. 일본은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등의 행위를 서투르게 흉내내어 실패하였지만, 그것은 마치 까마귀가 가마우지 흉내를 내다 물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였다고 소호는 말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은 ‘자업자득’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소호에 의하면 전쟁은 일본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강요당한 것이었다. 단지 일본은 중국과 미국, 영국의 실력을 오인하여 스스로의 실력을 오인하였다. 견뎌야 할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상대의 ‘책략’에 말려들어 패배한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셈이다.

상대란 무엇보다 미국이다. 승리한 미국의 전후는 어떻게 되었는가. “은 세상의 걱정을 혼자 떠맡아야 하는 가장 불리한 제비(貧乏籤)”를 뽑지 않았는가. “승리한 미국의 꼴을 보아라.” 이것이 냉전 하의 미국에 대한 소호의 솔직한 감상이었다. 여기서 그는 미국을 매도하여 후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승리자의 비애(勝利者の悲哀)』(1950년 집필)는 미국의 대일정책의 오류를 지적하고 미일 제휴야말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간곡한 충고를 했던 것이다. 소호의 관찰에 의하면 미국의 대일정책이 변화한 계기는 포츠머스 조약이었다. 러일전쟁에 승리했던 일본에 대한 질투심에서 미국은 지금까지의 방침을 전환하여 ‘경주마’를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민문제, 베르사유 회의, 워싱턴 회의 등 특하면 억지스러운 ‘징계’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외교가 서툰 일본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미국이 뭔데”라는 마음을 가진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B463).

러일전쟁 후에 ‘만약 미국이 일본에 손을 내밀어, 일본이 그 손을 잡았다더라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일류 국가로서 안정되고, 미국도 ‘가장 불리한 제비’를 뽑지 않고 ‘사업이 번창했을 것이다. 일본이 이웃나라들에 ‘모든 폐를 끼쳤던 것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다. ‘가만히 앉아 굶어죽는’ 것 보다 ‘건곤일척(乾坤一擲)의 계책을 내었던 것으로, ‘그 사정을 오히려 가엾게 여겨야 한다.’ 따라서 책임은 일본을 여기까지 몰아넣었던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실패에 있다.

이상의 소호의 주장은 참으로 제멋대로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바라지 않던 대미전쟁으로

파고들어가는 심리과정이 완벽하게 표출되어있다. 소호의 정치적 사고는 원리주의가 아니라, 차선의 방법을 택하는 편의주의였다. 15년 전쟁에서 정치과정의 하나하나는 필연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눈을 뜨니 만주사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라고 요구받고 있었고, '건곤일척'의 대미전쟁을 하는 길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미국은 좀 더 일본인의 자존심을 존중해야 했었다. 이것이 소호의 주장이다.

냉전 하의 대일 전쟁에 대해서 소호는 미국에 다음과 같이 간곡한 충고를 한다. 일본을 억압하여 약체화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안 된다. 미국이 취해야 할 방법은 일본에서 손을 뗄 것인지, 제2의 하와이로 할 것인지, 또는 자립시켜서 제후할 것인가이다. 두 번째 방법은 일본인의 반발을 야기하며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공산화하는 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군만민(一君萬民)의 일본적 민주주의를 뿌리박아 미일제후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이처럼 '귀축(鬼畜) 영미'의 내셔널리즘은 친미 내셔널리즘으로 치환되었다. 그러나 소호는 전향한 것은 아니다. 그는 전쟁 중과 마찬가지로 '대동아전쟁'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중국을 뒤에서 받치고 있는 것은 소련이고, 소련이야말로 최대의 적이라고 믿고 있다. 소호의 생각에는 일본이 열강을 따라잡으려고 초초해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질투를 받아 엇갈리게 된 것이고, 미일제후가 양국의 전통적 정책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소호의 내셔널리즘은 완벽하게 '재생'하였다.¹²⁾

6. 마치며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에 의하면 내셔널리즘은 '근대화'로 인한 아이덴티티와 자기의 존엄(dignity)의 위기에 대항하는 것으로, 그 본질은 '차이에의 호소'이다.¹³⁾ 이러한 개념규정에 따르면 근대일본의 내셔널리즘은 극히 굴절된 '차이에의 호소'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서구와의 차이를 자각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조선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레토릭에 호소하게 된다. 그 결과, 예를 들면 후쿠자와 유키치는 「종교도 역시 서양풍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宗教

12) 전후 일본의 보수세력은 '국체호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를 위해 '어제의 적'인 미국과 타협하였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를 필두로 전후의 통치 엘리트들은 '천황제 민주주의'(John W. Dower)라 불리는 미국 주도의 '민주화'에 협력하고 나아가서는 강화조약 이후에 미군의 주둔을 요청하였다. 이 때문에 1940년대 말의 강화로부터 1960년의 안보개정까지의 정치적 대립에서 내셔널리즘을 정치적 자원으로 이용한 것은 '반미'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혁신 측이었다. 여기서 소호가 논한 내셔널리즘이, 패전 직후를 제외하고, '친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3) Charles Taylor, 1977 "Nationalism and Modernity", R. McKim and J. McMahan (eds) *The Morality of Nation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も亦西洋風に従はざるを得ず」(1884년)에서 동물의 보호색에 관한 비유를 하면서 서구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지 않도록 하고, 그들과 서로 구별할 바가 없다고 보고 그들이 우리를 소외한다는 생각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福澤⑨531)라고 논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비굴한 태도는 일본 내셔널리즘의 굴절된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동조와 차이 사이에서 흔들리는 후쿠자와의 내셔널리즘은 소호에게 이어졌다. 러일전쟁 후의 소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국제적 고립감은 한편으로는 서구,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여러 국가라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진 차이에 대한 의식화의 결과였다. 후쿠자와의 자취를 뒤이어 소호가 따라간 좁고 험한 길은 마지막에는 절망적인 전쟁에 다다랐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호의 내셔널리즘은 이번에는 ‘친미’의 형태를 취하여 재부상한 것이다.¹⁴⁾

(번역: 김동명·이경미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외교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 내셔널리즘,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내셔널 아이덴티티, 찰스 테일러

투고일(2008.4.10), 심사시작일(2008.4.28), 심사종료일(2008.5.12)

14) 주지하다시피 냉전붕괴 후 일본에서는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고양이가 있었으며, 이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동향이 주목을 끌었다. ‘만드는 모임’의 멤버인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는 911 테러 이후에 발표한 『戰爭論』 제2권에서 ‘반미’의 자세를 선명히 나타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제1권과는 달리, 제2권에서 고바야시가 표명한 태도는 복잡한 파문을 일으키고 ‘만드는 모임’ 내에서도 격렬한 내부대립을 야기하였으며, 결국 이 모임을 사분오열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일본의 보수세력에게 ‘반미’ 내셔널리즘은 아직까지도 극복이 곤란한 터부로 유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bstract〉

Four wars and Transformation of Japanese Nationalism:
Case of Tokutomi Soho

YONEHARA Ken *

In general Japanese nationalism is considered to have changed its nature from the 'sound (or defensive)' one to the 'aggressive' one. But this interpretation does not explain the reason of its transformation, nor the continuous aspects of the two nationalisms. In order to overcome these defects in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I will explain, in this paper, the nationalism in modern Japan by taking the example of Tokutomi Soho, in terms of the idea of 'recognition' which is used by Charles Taylor.

Tokutomi Soho, famous journalist and ardent nationalist whose activity continued for about seventy years, had transformed his assertion as the political situation changed. This paper follows his articles at the time of four wars and its advocate of nationalism, by which I will show the transformation and continuity of Japanese nationalism.

Key Words : nationalism, Tokutomi Soho, National Identity, Charles Taylor

* Osaka School of International Public Policy, Osaka University / Professor